



종정 스님에게 예경하는 사부대중.



불자(佛子) 봉정.

종풍선양의 주장자 세우니...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스님 추대법회 현장

‘이 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
태고종 종도들에게는 9월 6일이 그런 날이었다. 지난 6월 열린 원로회의에서 태고종 제17세 종정으로 추대된 혜초(慧草) 스님이 취임하는 경사로운 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전통불교의식으로 추대식이 치러져 불교계는 물론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법회 장소인 서울 신촌 봉원사는 불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幡)과 종이꽃, 각계에서 보낸 화환으로 연화세계를 연출했다. 도량 구석구석까지 붉은 가사를 수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들어찼다. 어림잡아도 2천여명에 달하는 대중이 이른 아침부터 종정 스님의 취임을 기다렸다. 추대법회를 지켜보기 위해 이른 새벽 집을 나섰다는 김선덕화 보살(54·인천시 남구 주안동)은 “태고종의 최고 어른을 모시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경축메시지

오전 10시 30분 법회를 알리는 범종소리가 사바세계로 퍼져 나가고 삼천불전에서 선·조사와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바치는 헌다(獻茶)의식을 시작으로 종정 추대법회가 시작됐다. 무형문화재 제50호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의 집전으로 진행된 다례의식은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취임을 고하는 특별한 자리. ‘전통종단’을 자임해 온 태고종에서 전통 그대로 이어온 의식이다.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은 “종정 추대법회와 같은 특별한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 행하는 다례의식은 영산재의 일부인 종사 영반(宗師 靈飯)으로, 법회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며 “전통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태고종의 정통성을 엿보게 하는 의미 있는 의식”이라고 소개했다.
혜초 스님은 곁에 차려진 다례상에 정성 들여 우린 차를 올린 뒤 선조사 스님과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3배로써 종정 취임사를 알렸다. 태고종 원로의장 일우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종회 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범종 스님 등 함께 자리한 2백여 원로·종진 스님들도 종정 혜초 스님을 따라 배례했다.

전통불교의식 따라 진행

종사 영반에 이어 큰스님을 범회장까지 모시는 ‘종사 이운(宗師 移運)’이 진행됐다. 25초 가사를 수한 혜초 스님이 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삼천불전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혜초 스님을 선두로 긴 행렬을 이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 태고종 원로·종진 스님들이 선·조사와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종정 취임을 고(告)하고 있다.

룬 원로·종진 스님들이 2열로 줄지어 선 스님들을 지나 상단에 올랐다.
혜초 스님이 법석에 올라 원로의장 일우 스님으로부터 종단의 큰어른을 상징하는 주장자와 불자(佛子)를 건네받았다.
해방이후 조선불교 1세 교정 한영 스님, 한암 스님, 만암 스님, 묵담 스님, 대륜 스님, 보성 스님, 백암 스님, 덕암 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종통(宗統)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사부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반배와 박수로 최고 권위의 상징인 종정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혜초 스님은 좌중을 둘러본 뒤 주장자를 높이 들어 “태고의 맑은 바람이 오락야세에 드날라니(太古淸風揚灑世), 만고의 부처님 광명이 길이 멀지 않으리라(萬古佛光永不滅)”는 계승을 읊고 “태고종도와 불자들은 이 시대 증생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새 불교를 구현하는데 기일 증정진하라”고 법문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정 혜초 스님의 당부를 받들어 “혜초 종정 예하를 정점으로 하여 종도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대승교화종단으로서 종풍을 선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혜초 스님의 종정 취임법회는 각계인사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한국불교는 물론

사회와 큰스승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한 자기수행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오신 혜초 종정스님께서 앞으로 종단의 더 큰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는 경축메시지를 발표 했다.

“새불교 구현 위해 정진” 법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효암 진각종 총무원장 장,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우송 총지종 총무원장, 보문종 총무원장 범종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는 물론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의 축

하메시지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범종 스님을 비롯 각 종단 대표들은 “태고종 최고 어른으로 추대된 혜초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광야의 사자후처럼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추대법회에 참석한 2천여 대중은 “모든 존재들과 이 공덕을 나누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종정 혜초 스님은 임기 5년동안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율원 설치를 비롯해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해 나간다고. 아울러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태고종의 종지종풍 확립과 후학들의 수행지도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글=박봉영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법회에 앞서 부처님께 배례하는 혜초 스님(가운데).



선·조사와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올리는 헌다.



종정 법좌에 오른 혜초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내리고 있다.



혜초 스님과 태고종 원로·종진 스님들이 다례의식을 마치고 종사 이운을 기다리고 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 650,000원 (중국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일자	주요 일정
20일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담저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소림사, 탑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만리장성 관광, 용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천진으로 이동 진전페리 승선 / 출발
25일	인천 도착 해산

오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용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와역사, 연통사) ₩ 6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삼천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